

중진 의원들 정치력 부재 '호남정치 실종' 불렀다

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경선 도전 ... 줄줄이 '고배'

선택과 집중 못하고 역량 결집 안 돼 ... 후유증 클 듯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지도부 진입에 실패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이끌어 내는 정치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3선 이상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김성곤(4선), 이낙연(4선), 박지원(3선), 주승용(3선), 우윤근(3선), 김동철(3선), 강기정(3선)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강기정, 김동철 의원은 각기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은 것으로 관측된다.

강 의원은 원내대표를 위해 사퇴하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1, 2 위 후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표심 확보에 그치면서 오히려 우윤근 의원의 발목을 잡지 않았느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승리의 복전까지 갔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동철 의원을 지지했던 비주류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패배 배경에는 대세에 따르는 순응주의 행보 등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부족이 꼽히고 있다.

지도부 경선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던 지역 중진 의원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주승용, 이낙연 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전남지사 경선 이전, 두 사람의 의원직 사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 마

디로 의원직과 지사직을 저울질하지 말고 모든 것을 '몰인'하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승용 의원은 대표 경선 과정에서 광주의 이용섭 의원을 외면하고 김한길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눈총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의 중심에 있었던 박지원 의원도 정치적 존재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 송사에 휘말린 데다 향후 2년 동안 당직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 등 정치적 유동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매개로 박지원 의원이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4선의 김성곤 의원은 비대위 체제 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을 맡았지만 별다른 정치적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전준위원장 사퇴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스타일을 구겼다든 평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신당 창당 등이 예고되는 정치적 격변기에 3선 이상의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정치적 존재감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지도부 경선에서 지역 중진 의원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에 실패, 호남 정치권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정치권 위기의 책임이 지역 중진 의원들에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정치적 유동성이 큰 시기라는 점에서 지역 중진 의원들은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게타츄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이 15일 오후 각각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게타츄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이 15일 오후 각각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월 젊은이들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자”

이희호 이사장·게타츄 유네스코 사무부총장 5·18 참배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게타츄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이 15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여사는 방명록에 '5월의 정신은 영원하리!'라고 적은 뒤 5·18 민중항쟁 추모탑 앞에서 헌화·분향했다. 이어 아용산 수치 여사가 지난 1월 광주를 방문했을 때 심은 소나무와 2006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기념비 등을 둘러봤다. 이날 이 여사의 참배에는 윤양희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국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 여사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다음달 개관을 앞둔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둘러 관계자를 격려하

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 여사는 오는 17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하며 1박 한 뒤 18일 귀경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게타츄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도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엔기다 사무부총장은 "많은 젊은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교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석과 5·18

때문에 광주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갈등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는 "그 노래는 알지 못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의견차이는 언제나 존재하며, 중요한 것은 논의와 토론을 통한 조율이다"면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노래를 언제 어디서나 부를 자유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방명록에 '열사들의 영혼에 신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긴 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최초로 숨진 청각장애인 김경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등의 묘를 참배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관음보살 품 넓은 자비가 넘치는 오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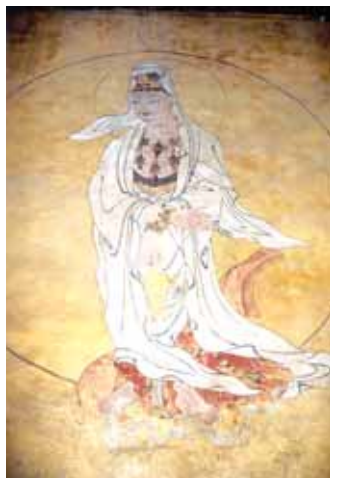


(28) 불화(佛畵)

거리에 불 밝힌 연등 행렬을 보니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온 것 같다. 평소 미망과 미혹 속에서 헤매다가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 앞에 서면 '참 나(眞我)'를 찾고 싶다는 분발심이 문득 되살아난다. 부처님은 확실히 우리 같은 중생들에게 인간 존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언젠가 석탄일에 갇힌 무위사(無爲寺)에 다녀왔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많이 변했을 터이지만 이 절집은 큰 행사 중에도 소담하고 한적했다. 구석구석 짚어봐야 할 문화유산도 많았고 무엇보다 극락보전 벽화를 만났던 것은 지금도 마음 들뜨게 한다. 무위사 극락보전 안에는 별도로 세워진 흙벽 위에 '아미타 삼존불과 후불 벽화', 그 후불 벽 뒷면에 그려진 '백의관음도(白衣觀音圖)'가 있다.

'수월관음도'라고도 불리는 '백의관음도'는 1476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당당한 체구의 관음보살이 흰 옷자락을 휘날리며 넘실대는 바다 위에 연잎을 타고 서서 두 손으로 각기 정병과 버들가지를 살짝 쥐고 있다. 종교화로서 독보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도

적인 미의 세계를 창조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꼽히는 '고려 불화'. 그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조선 초기 불화의 새로운 특징을 살리고 있는 이 벽화는 단숨에 그어 그린 먹선의 유려한 맛이 걸작의 품미를 드러낸다. 현대의 많은 수목 화가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월에 찾았던 무위사가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것은 강진, 해남 사람들의 수륙재(水陸齋)를 지냈던 곳이기도 한 까닭이다. 수륙재는 전쟁 등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이승을 떠나 육지와 물 위를 떠도는 모든 영혼을 달래면서 적까지도 포용하고 위로하는 불교 의식이다. 관음보살과 무위사의 수륙재처럼 품 넓은 자비가 넘치는 오월을 기원해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빛의만평

- 김중두



'블랙지수' 말이 아니다

2013 코리아

신안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신안군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 일원

5월 17일~19일까지 (3일간) 본행사 및 부대행사 개최

대회일정 5월 18일 07시 부터 24시까지

폐 회 식 5월 19일 11시부터

부대행사
신안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엑스포 개최, 신안천일염, 자은산신동 명궁, 대파, 마늘 등 참가선수, 가족 및 지역민과 함께 하는 열기구 체험, 갯벌체험 행사 운영

대회 참가자 및 가족은 신안군 섬 방문시 숙, 식비용의 50%를 상시지원(남해안 관광 활성화 지원)

대회운영본부 | 010-2604-9024

주 회 | 전라남도 신안군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전남철인3종경기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남연합회, 국민생활체육신안군연합회